

조나단 에드워즈의 칼빈주의 부흥이해

강웅산 (총신대 신학대학원)

I. 들어가는 말

칼빈평양부흥 100주년을 맞이하며 한국교회는 부흥에 대한 기대와 열원에 부풀어 있는 것 같다. 교파를 막론하고 부흥을 염원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보이는 복음주의적 특성임에 틀림없다. 다시금 평양부흥 사건과 같은 부흥이 재현되기를 염원하며 그 재현의 가능성과 방법에 대한 모색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이다.

이 차제에 필자는, 한 편으론 오늘날의 부흥운동이 Charles Finney 식의 다분히 알미니안적인 요소가 많은 것을 감지하면서, 칼빈주의 신학에 근거한 부흥이론은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질문을 던진다. 부흥을 촉구하는 자체가, 부흥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 자체가, 이미 알미니안적인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강조하는 칼빈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부흥은 있으면 좋겠지만 당장은 기도하며 기다려야만 하는 성질의 것인가? 칼빈주의 신학구도 안에서는 부흥을 촉구할 수 없는 것인가? 할 수 있다면 그런 선택이 혹 교회역사 중에 있었는가? 일련의 질문을 통해 18세기 제1차 대각성운동이라고 일컬어지는 부흥사건을 생각하게 되었고, 이 부흥의 대표격

인 조나단 에드워즈를 생각하게 되었다.

18세기 뉴잉글랜드 지방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제1차 대각성운동은, 19세기로 넘어가며 일어났던 제2차 대각성운동과 대조하여, 칼빈주의 신학이 지배하였던 부흥사건으로 교회사가들은 평하고 있다. 그 점에 관해서 에드워즈의 칼빈주의 변증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음은 재론이 불필요한 것 같다.¹⁾ 이렇게 볼 때, 가능성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에드워즈가 부흥을 이해하고 정립하며 나아가 추구하는 작업에 있어서 어떻게 그의 칼빈주의 신학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혹 우리의 시대에 필요한 지혜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이 논문은, 그런 의미에서, 에드워즈가 부흥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칼빈주의 신학이 기여하고 있는지 설명하려 한다. 에드워즈가 부흥을 변호하였던 것이 단지 진행 중인 상황을 정당화하기 위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부흥 이해는 그의 칼빈주의 신학에서 기인하였다는 결론을 보이려 한다. 즉 우리는 그의 부흥이해를 부흥신학이라고 일컬을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나아가 이 결론은 오늘날 우리도 칼빈주의 신학의 틀 안에서 부흥을 이해하며 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를 해 본다.

제시된 목적을 위해서 이 논문은 먼저 에드워즈의 대표 저서들을 부흥의 관점에서 부흥이라는 주제가 그의 사상의 틀 안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로서 그의 전체 사상과 깊은 연관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살펴 볼 것이다. 부흥이란 주제를 다룸이 지역적인 것을 필요이상으로 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입증한 후, 에드워즈의 부

1) Mark A. Noll, *A History of Christianity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Grand Rapids: Eerdmans, 1996), 91-97; Sydney E. Ahlstrom, *A Religious History of the American Peopl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2), 295-313.

흥 이해가 갖고 있는 칼빈주의적 특성들을 분석해 보려고 한다. 이 점이 본 논문의 주된 논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부흥과 관련한 에드워즈의 신학적 정립이 후대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고 있는지 지적해 보도록 하겠다.

II. 부흥의 관점에서 본 에드워즈의 저서들

에드워즈의 부흥이해가 지엽적 관심사였거나 상황적 변증의 차원이 아닌, 그의 신학 전체를 관통하는, 즉 그의 신학을 부흥의 관점에서 엮을 수 있는, 성질의 것임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그의 주요 도서들에 어떻게 그의 부흥의 이해가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겠다. 에드워즈의 저서들을 부흥의 관점에서 볼 때, 부흥이라는 주제가 비록 가장 중심적인 주제는 아닐지라도, 그의 신학과 사상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주제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1734-35년의 노쓰햄튼 부흥을 기록한 1736년의 *자세한 기록(Faithful Narrative)*은 에드워즈라는 이름이 국제무대에 알려지는 기회가 되었다. 대서양 건너편에 부흥을 사모하던 사람들에게 이 한편의 보고는 부흥의 가능성을 확인시켜주었을 뿐 아니라 부흥에 대한 큰 염원을 불태우게 했던 작품이었다.²⁾ 에드워즈의 부흥에 대한 입장은 1741년 예일대학교 졸업식 연설을 계기로 다시 글로 표현된다. *성령의 역사의 특징들(The Distinguishing Marks of the Work of the Spirit of God)*은³⁾ 당시 진행 중인 대각성운동을 성령

2) 이 글이 어떻게 사람들의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여러 차례 출판되게 되는지의 과정은 Jonathan Edwards, *The Great Awakening*, vol. 4,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2), 32-46을 보면 알 수 있다. 이후 에드워즈 인물은 우선적으로 Yale판 전집에서 할 것이며, 약식으로 글의 제목, 책 번호와 페이지만을 기입하도록 한다.

의 역사에 의한 진정한 부흥인 것으로 정의하면서, 성령에 의한 부흥이 갖는 특징들을 열거하였다. 이 글을 통해서 에드워즈는 공식적으로 뉴잉글랜드 사회에서 뉴라이트(New Light)로 각인된다. Charles Chauncy를 필두로 한 올드라이트(Old Light)는, 충분히 예측이 가는대로, 에드워즈를 비롯한 뉴라이트를 극단적인 광신자들로 몰아붙였을 뿐 아니라 기존의 청교도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린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한 에드워즈의 반론은 *부흥에 대한 고찰* (*Some Thoughts Concerning the Present Revival of Religion in New England*)로 이어졌다. 이 논문은 이 전의 부흥에 관한 글들보다 훨씬 조직적인 변증의 글이었다. 에드워즈가 보기에 사실상 부흥사건에 가장 큰 해를 끼치는 요소가 올드라이트의 반대가 아니라 뉴라이트 가운데 있는 광신자들의 절제 없는 행동들이었다. 이 글에서 중요한 것은 에드워즈가 양극단으로부터 부흥을 지키는 변론을 했다는 점이다. 그는 칼빈주의 신학에 입각하여, 밖으로는 반대파를 향하여 안으로는 광신자들을 향하여, 현재 부흥의 순수성의 변론과 함께 계속해서 부흥을 권장해야 할 이유를 천명함으로써 칼빈주의 부흥신학을 정립해 나간 것이다.

여기에서 잠깐 언급할 필요가 있는 글이 있다. 언뜻 보기에는 부흥의 글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지만 부흥에 대한 염원 속에서 하나의 이상적 신앙인으로 소개하고 싶은 에드워즈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개인적인 글이 하나 있다. 이것은 1739년도에 나온 그의 *회고록* (*Personal Narrative*)이다. 이 글은 1736년의 자세한 기록 (*Faithful Narrative*)과 1741년의 *성령의 역사의 특징들* (*The Distinguishing Marks of the Work of the Spirit of God*) 사이에 위치한다. 그가 1736년 자세한 기록을 출간하여 대서양 건너

3) 이 글의 제목을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으로 명명하는 것은 마치 에드워즈가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 글에서 에드워즈의 의도는 단지 성령 사역의 특징들을 열거, 분석, 설명을 통해 성령의 사역을 변론하는데 있다.

편에 까지 부흥에 대한 동경과 설렘을 유도하는 효과는 달성 하였지만, 그 때는 이미 그 글이 말하는 부흥의 불은 꺼진 이후였다. 여기에서 그가 1739년에 내놓은 회고록이 1736년의 글과 1741년의 글 사이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에드워즈는 부흥의 불이 꺼진 이 시점에서 한편 1734-35년과 같은 부흥을 사모하며, 다른 한편으론 거의 2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버린 자신의 회심이나 영적체험들을 회고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회고록은 단순한 자서전이라기보다는 또 한 번의 부흥을 염원하며, 자신의 체험에 이상적 신앙인을 투영하는 듯한 느낌도 물씬 풍기는 부흥의 염원이 담긴 글로 이해할 수 있겠다.

1746년, 대각성의 불길이 꺼진지도 오래며 노스햄튼 교회에서 그의 입지는 이제 서서히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에드워즈는 그의 불후의 명작 중 하나인 *신앙의 감화(Religious Affections)*를 출간하였다.⁴⁾ 부흥을 통해 회심하였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시간이 가자, 목회자 에드워즈가 볼 때, 이 사람이 참된 신앙인인가 할 정도로 의심이 가는 사람들이 눈에 띠었고, 그런 사람들이 성찬을 받아도 되는가하는 질문이 생겼다. 무엇이 사람을 진정한 신앙인이 되게 하는가하는 그의 질문은 목회자의 질문이었다. 에드워즈는 이 글에서 신앙의 감화가 있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인 것으로 규명하면서 참된 신앙, 즉 신앙의 감화에 의한 행동과 그렇지 못한 상황적, 충동적, 주변적 행동들을 구분하였다. 결국 후자에 해당되는 행동들은 진정한 회심으로 인정할 수 없는 행동들이며, 그런 행동의 사람들이 성찬을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논리이다. 다분히 이론적이며 기술적인 내용을 다루는 글이며, 부흥을 직접적인 주제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부흥과 무

4) 에드워즈의 *Religious Affections*를 어떻게 번역할 것이냐가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 내에서 “신앙감 정론” 또는 *Affections*를 “애정”으로 번역하는 것은 저자의 사상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여겨지며 *Affections*라는 단어의 번역은 에드워즈의 신학이해를 토대로 해야 할 것이다.

관한 것으로 인식되기 쉬운 글이다. 그러나,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이 글은 그의 부흥신학을 정리하는 최종적인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참된 부흥과 그렇지 않은 현상들을 판가름 하는 근거를 어디에 두며, 고로 어떤 형태의 부흥을 권장해야 할지에 대한 교과서와 같은 글이라고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에드워즈의 부흥신학은 단번에 형성된 것이 아니었다. *성령의 역사의 특징들, 부흥에 대한 고찰, 신앙의 감화* 등, 글의 횡수가 거듭되면서 그 부흥에 대한 신학도 성숙해졌다고 하겠다.

*신앙의 감화*를 끝으로 부흥에 대한 에드워즈의 관심은 다한 것이 아니었다. 1747년 에드워즈는 부흥을 염원하며 간절히 기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글 *겸허한 시도 (An Humble Attempt)*를 출간하였다. 다시금 부흥을 염원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종말론적 역사의식에 근거하는 일이었다. 마지막 때에 관한 성경의 약속들을 근거할 때, 그리스도의 왕국이 도래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 대단한 부흥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이다. 고로 그 부흥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기도라는 그의 신학이 반영된 기도로의 부름이라고 하겠다.

1749년에 발간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전기 (An Account of the Life of the late Reverend Mr. David Brainerd)*는 한 병약한 선교사 청년이 에드워즈 집에서 죽는 갑작스럽게 발발된 상황 속에서 나온 글이긴 하지만, 그 글은 에드워즈가 추구하는 부흥의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글이다. 브레이너드의 생애는, 에드워즈가 판단할 때, 진정한 부흥을 통해서 추구해야 할 참된 신앙인의 삶을 대표할 만한 훌륭한 모범이었다. “이 브레이너드의 생애는 대 각성과 부흥의 때에 우리로 하여금 숭고한 신앙의 감화, 사람들에게 마음에 남겨진 놀랄만한 자국, 등을 옹게 분별하도록 돕는다”는⁵⁾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에드워즈는 브레이너드를, 부흥

이 추구하는 그리고 신앙의 감화가 정의했던, 이상적인 신앙인으로 소개한 것이다. 물론 에드워즈의 모든 글이 부흥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의 대표적 성격을 띠는 글들은 대체로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부흥과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1749년의 겸허한 질문 (*An Humble Inquiry*)은 많은 경우 부흥을 통해 회심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성찬의 자격문제를 다룬 내용이고, 1754년의 의지의 자유 (*Freedom of the Will*)는 부흥이나 회심에 있어서 대두가 되는 칼빈주의 의지의 교리를 알미안 사상으로부터 방어하는 사실상 실천적 성격-비록 글의 내용은 매우 어렵지만-이 강한 글이다.

에드워즈의 대표적인 글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부흥이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주제였는가 하는 것이다. 비록 그의 신학의 가장 중심의 주제는 아니더라도 그의 대표적인 글들에 그의 부흥 이해가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부흥이란 주제는 단순히 주변적인 것이거나 상황적 변론이 아니라 그의 전체 신학과 떼어놓고 볼 수 없는, 특히 그의 칼빈주의신학을 반영하는, 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III. 에드워즈의 부흥이해에 나타나는 칼빈주의 특성

Martin Lloyd-Jones가 옳게 지적한 대로, 에드워즈는 부흥을 “성령의 부으심(an outpouring of the Spirit)”으로 이해했다.⁶⁾ 그러나 에드워즈는

5) Edwards, *The Life of David Brainerd*, 7:517.

6) “Read Edwards on revival. The term he used always is ‘an outpouring of the Spirit’.” Martin Lloyd-Jones, *Puritans: Their Origins and Successors* (Edinburgh: Banner of Truth Trust, 1987). 368.

부흥에 관한 많은 글을 쓰면서도, 부흥을 별개의 신학적 주제로 다루지는 않았다. 사실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소위 “부흥신학”은 어떤 특수 상황에 대해 대변 또는 정당화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에게 있어서 부흥은 그가 이해하는 칼빈주의 신학의 자연스런 귀결이었기 때문이다. 성령의 부으심으로 압축되는 그의 신학적 정의는 우리가 그의 신학 전반을 배경하여 그의 부흥신학을 이해하는 일에 큰 유익이 된다. 필자는 여기에서 두 가지 측면을 통해 에드워즈의 부흥이해가 칼빈주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입증해 보이려 한다. 먼저 신론의 관점에서, 에드워즈의 부흥이론에 하나님 중심 사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둘째, 인간론적 관점에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그리고 영적으로 나태해 있는 교인들에게 성령의 부으심이 왜 필요한지 보이려고 한다.

A. 하나님 중심적 신학

에드워즈의 부흥이해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것이다. 부흥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적인 접근을 하느냐, 아니면 사람 중심적 접근을 하느냐의 차이는 부흥을 통해 기대되는 목적과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큰 차이를 낳는다. 교회의 부흥의 역사(history)를 보면 이 차이는 조나단 에드워즈와 찰스 피니(Charles Finney)의 대조, 제1차 대각성 운동과 제2차 대각성운동의 대조라고도 할 수 있다. 에드워즈의 하나님 중심의 부흥신학은, 그의 신학 전반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그 목적으로 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그 원인으로 하고 있다.

1. 부흥의 목적 : 하나님의 영광

에드워즈의 신학에 있어서 부흥은 그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고 있

음을 읽을 수 있다.

에드워즈는 그의 저서 *천지 창조 목적* (*Concerning the End for which God Created the World*)에서, 먼저는 논리의 힘을 빌려,⁷⁾ 다음은 성경의 증거를 통해,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사역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이며 최고의 목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논문의 중심 사상을 둘로 압축한다면, 특별히 그것이 부흥을 권장해야 하는 이유 즉 신학적 근거가 되는데, 첫째는 인간의 최대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성경을 근거로 에드워즈는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의 행동의 최고의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되도록 바라고 추구해야”⁹⁾ 함을 강조한다. 이 점은 에드워즈의 제자 Samuel Hopkins에 의해 *두 편의 논문* (*Two Dissertations*) 안에 *천지 창조 목적*과 함께 짝을 지어 출간된 *참된 덕의 특성* (*The Nature of True Virtue*)을 통해서도 확인 된다. “하나님을 향한 주권적 사랑 하에 있는 진정으로 선한 마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그것을 그의 최고의, 지배하는,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다.”¹⁰⁾

하나님의 영광이 에드워즈의 부흥신학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두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목적이 당신의 영광에 있다는 점이다. “성경을 통해 볼 때 명백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위대한 섭리인 구속의 사역의 가장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점이다.”¹¹⁾ 이 점은 에드워즈가 평생토록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주제였다. 그가 말년에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사양하는 편지에 보면, 그

7) Edwards, *Concerning the End for which God Created the World*, 8:419-63.

8) *ibid.*, 8:465-536.

9) *ibid.*, 8:481-82.

10) Edwards, *True Virtue*, 8:559.

11) Edwards, *Concerning the End for which God Created the World*, 8:485.

가 사양하는 이유를 바로 이 점과 연관짓기도 하였다.¹²⁾ 그 편지에서 에드워즈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가장 크신 계획이었고, 신적 활동과 작정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것이며 궁극적인 것”이라고 한 것이 바로 그의 미완성의 명작 *구속사* (*A History of the Work of Redemption*)의 주제인 것이다. 즉 *구속사*의 서두에서 에드워즈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역은 인간의 타락에서부터 세상의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밝히고 있다.¹³⁾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당신을 영화롭게 할, 즉 각 삼위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계획을 하셨다... 그 계획을 이룰 중요한 수단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구속의 위대한 일이다.”¹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은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구원의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최고의 수단이면 방편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의 관심과 연관하여 놀라운 일은 “인간의 타락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구속의 사역이 사실상 성령의 놀라운 부으심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성령은 늘 지속적으로 그 영향을 끼치시고 있지만,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데 있어서 가장 괄목할만한 일들은 특정한 은혜의 때에 성령의 놀라운 부으심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¹⁵⁾

에드워즈의 구속사적 역사관은 결국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거두시기

12) Edwards, “To the Trustees of the College of New Jersey,” “I have had on my mind and heart (which I long ago began, not with any view to publication) a great work, which I call *A History of the Work of Redemption*, a body of divinity in an entire new method, being thrown into the form of a history, considering the affair of Christian theology, as the whole of it, in each part, stands in reference to the great work of redemption by Jesus Christ; which I suppose is to be the grand design of all God’s designs, and the *summum* and *ultimum* of all the divine operations and decrees; particularly considering all parts of the grand scheme in their historical order.” 16:727.

13) Edwards, *A History of the Work of Redemption*, 9:116.

14) *ibid.*, 9:125.

15) *ibid.*, 9:143.

위하여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계시고, 특별히 그 구속의 일이 특별한 은혜의 때에 놀라운 성령의 부으심을 통하여 크게 달성됨을 말한다. 결국 에드워즈가 볼 때, 부흥의 사건은 하나님의 하시는 구속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며 특별히 그 규모에 있어서 크게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최대화가 되는 효과를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그의 부흥에 관한 글들이 보이는 핵심의 내용이다. 대각성운동에 대하여 자세한 분석과 평가를 내렸던 *부흥에 관한 고찰 (Some Thoughts Concerning the Revival)*에서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런 일[부흥]은 그 특성과 종류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일중에도 가장 영광된 일이며 성경도 항상 그렇다고 말하고 있다. 구속의 일(하나님의 모든 다른 일보다도 더 위대한 일이며 창조의 사역도 그것에 대해 하나의 그림자인 일)이 결국 부흥의 성공과 목적이며 새 창조의 일이며, 옛 창조보다 무한대하게 더 영광스런 일이다.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데, 영혼을 회심시키는 하나님의 일, 그 근원과, 기초, 사심(purchase), 또한 유익, 영원성 등을 고려할 때, 모든 물질계의 우주를 창조했던 것보다 더 영광된 하나님의 일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발하는 모든 일보다도 더 영광된 하나님의 일이다. 성경에서도 그 일을 하나님의 위대한 신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과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리고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그 원수들을 물리치고 가장 영광스런 승리를 이루셨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높이 존귀히 여김을 받으신다고 말하고 있다.¹⁶⁾

하나님 중심의 에드워즈의 신학을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이며 최고의 목적은 당신 자신의 영광이다; 그리고 창조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내는 일에 있어서 당신이 하시는 구속의 일만큼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없다; 여기에서 그 구속의 일은 성령의 놀라운 부으심

16) Edwards, *Some Thoughts Concerning the Revival*, 4:344.

이 있는 부흥을 통해 크게 일어난다; 고로 부흥은 가장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내는 구속의 일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최고의 목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극대화하기 위해 부흥을 추구하는 일이야말로 인간의 의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같이 에드워즈는 부흥의 신학적 당위성을 근본적으로 칼빈주의 신학 틀 안에서 찾고 있다.

2. 부흥의 원인 : 하나님의 주권

다음으로, 에드워즈는 부흥의 원인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두는 칼빈주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어느 누구 못지않게 에드워즈가 칼빈주의자였다는 점은 그가 1731년 7월 8일 보스턴의 공개 강연에서 공식적인 데뷔를 통해 온 세상에 입증되었다. 하바드를 중심으로 한 보스턴이 당시 만28세기 채 되지 않은 에드워즈를 공개 강연의 강사로 초청한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그 위대했던 Solomon Stoddard의 후임이 도대체 누구인지에 대한 호기심과, 다른 하나는 그는 하바드 출신이 아닌 예일 출신이었다는 점이다. 이 강연에서 에드워즈는 알미니안 사상이 만연한 하바드 청중 앞에서 그는 전형적인 칼빈주의 설교를 하였으며, 사실상 이것이 그의 전 생애를 걸친 알미니안과의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에드워즈가 고전 1:29-31을 갖고 “구속의 사역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God Glorified in the Work of Redemption)”이라 설교를 통해서 확고히 한 일은 인간은 구원을 위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존해야만 한다는 칼빈주의 신학의 본질을 재천명 하는 일이었다. “하나님은 이 구속의 사역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안에는 철저하게 절대적 (absolute)이며 예외 없는 (universal) 하나님께 대한 의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¹⁷⁾ “우리의 눈을 그에게만 고정하고, 자기 의존적이며,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우리의 심성을 죽이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철저한 의존 의식을 고취하며 더 강화하는 일을 위해 노력합니다.” “만약 누가 영생에 대한 위로와 소망을 갖는다면, 이 소망이 그를 부추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욱 낮추도록 해야 하며, 그런 은총을 받기에 지극히 부자격을 되새기며 하나님만을 높여야 합니다.”¹⁸⁾ “만약 이런 일[부흥]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제까지 하셨듯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일을 자유로운 주권의 은혜의 영광스런 승리의 사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장 미련스럽도록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일 것입니다.”¹⁹⁾ 인간이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때, 즉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의 은혜에만 의존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된다는 그의 칼빈주의 정서는 그의 설교와 신학을 통해 물씬 느낄 수 있다. 에드워즈의 이런 칼빈주의 정서에 대해 J. I. Packer는 “자유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절대 의존 사상은 에드워즈의 신앙관 전체를 지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의 전체 신학에 있어서 표준적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 평하였다.²⁰⁾ 즉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부흥의 사건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당신만이 부흥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이다. 고로 교회는 부흥에 대해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만 의존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부흥을 하나님의 주권에 비추어 이해한다는 것은,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구속 역사(redemptive history) 관점에서, 즉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해

17) Edwards, “God Glorified in the Work of Redemption,” Banner, 2:3.

18) *ibid.*, 2:7.

19) Edwards, *Some Thoughts Concerning the Revival*, 4:345.

20) J. I. Packer, *A Quest for Godliness* (Wheaton: Crossway Books, 1990), 311.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은 부흥이 특징적으로 구속 역사의 완성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에드워즈의 종말론적 확신 때문이기도 하다. 1743/44년 3월 5일 William McCulloch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에드워즈는 이제 과거의 사건이 되어버린 대각성운동을 회고하며 종말론적 관점에서 볼 때, 부흥은 구속의 위대한 일이 있기 위한 필요한 단계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종종 말해오기를, 지나간 놀라운 부흥을 볼 때, 성경에서 아주 자주 예언되는 그런 놀라운 시대에 대한 전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예언된] 빛의 첫 여명이었으며, 그 일의 시작이었으며, 그 진행과 결실을 통해 마침내 교회의 마지막 때의 영광을 도래케 할 것입니다.”²¹⁾ 에드워즈를 전적으로 후천년주의자라고 분류하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손 치더라도 다분히 후천년론적 특성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부흥과 관련하여 에드워즈의 종말론적 성향은 그의 겸허한 시도 (*An Humble Attempt*)에서 잘 나타나고 있으며, 부흥에 관한 글들-예를 들어 *부흥에 관한 고찰*에서도 종종 발견된다.²²⁾ *겸허한 시도*에서 그는 “성경에 비취 보더라도 확실한 것은, 이제까지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대규모의 성령의 풍성한 부으심을 통해 아직 신앙심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그리

21) Edwards, “Letter to William McCulloch,” 4:560. 에드워즈의 부흥에 관한 글들을 편집한 C. C. Goen은 에드워즈에 대하여 “미국의 최초의 후천년주의자”라고 명명하면서 미국의 이상 “구세주 국가”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칭찬하였다. 특별히 미국이 독립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목에서 긍정적이며 가능성을 약속하는 역사관에 기독교적 근거를 제시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Introduction” to *The Great Awakening*, 4:71-72. cf. C. C. Goen, “Jonathan Edwards: A New Department in Eschatology,” *Church History*, 28 (1959), 25-40; Ernest Lee Tuveson, *Redeemer Nation: The Idea of America's Millennial Rol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8); Perry Miller, *Errand into the Wilderness*, (Cambridg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56), 1-15.

22) 에드워즈는 *부흥에 관한 고찰*의 제2부에서 [미국에서 시작될지 모를 천년기라는 부제 하에서 몇 년 전 McCulloch에게 보냈던 편지의 내용과 비슷한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 ‘Tis not unlikely that this work of God's Spirit, that is so extraordinary and wonderful, is the dawning, or at least a prelude, of that glorious work of God, so often foretold in Scripture, which in the progress and issue of it, shall renew the world of mankind.” *Some Thoughts Concerning the Revival*, 4:353.

스도의 왕국에 관한 대대적인 관심의 진보가 남아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기대를 보이고 있다.²³⁾ “복음이 온 세상에 편만해 질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온 지면으로 확장 될 때”가 에드워즈가 말하는 그 남아있는 황금기, 천년기인 것이다. “이 마지막 때에 성경에서 어린 양의 결혼으로 자주 묘사하였던 성령의 위대한 부으심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모아진 당신의 교회에 대하여 특별히 기뻐하시는 계절이 있을 것이다. 그 계절이 성령의 놀라운 부으심의 때이다.”²⁴⁾

에드워즈의 하나님 중심의 부흥신학은, 한편으론, 부흥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의미에서 부흥을 권장하는 동기를 찾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종말론적 역사관 비추어 볼 때, 부흥을 추구하는 것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사명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부흥에 대해 단일한 태도나 반대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에 대해 단호하게 경고를 내리는 것이다.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속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령을 놀랍게 부으시는데, 그보다도 주께서 당신의 영을 마지막으로 최대로 부으시며,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복된 날을 도래하기 위해 오시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며, 주님의 일을 돕지 않는다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 때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구속이 임하기로 약정된 계절이다. 이 때는 하늘나라가 땅위에 임하는 적합한 시간이며,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위해 정해진 때이며, 이 세상의 신으로 행사했던 사탄의 군림이 거기까지인 것이다. 이것이 실제적 구원의 시간이며, 사65:17-18, 66:12, 그리고 계21:1에서 볼 수 있는 새창조의 때이다. 이 이전에 있었던 모든 성령의 부으심은 본질적으로 이 기대 속에 존재했다.²⁵⁾

23) Edwards, *An Humble Attempt*, 5:329.

24) Edwards, “The Church’s Marriage to Her Sons, and to Her God,” *Banner*, 2:22.

25) Edwards, *Some Thoughts Concerning the Revival*, 4:358.

에드워즈의 부흥이해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지적되어야 할 특징은, 이제까지 본 것처럼, 하나님 중심적인 강조이다. 이 점이 부흥이해가 정서와 동기 면에 있어서 매우 칼빈주의적인 이유라고 하겠다. 부흥의 목적과 원인을 하나님께 두는 그의 부흥이해는 그가 어떤 신학을 하는가에 영향을 끼치었다. 즉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은 단순한 구호/슬로건이 아니라, 그의 신학함에 방법론적 중요성을 지닌다 하겠다. 그런 점에서 에드워즈에게 어울리는 표현은, 칼빈주의 신학의 특징인 그의 하나님 중심 신학이 그의 부흥 신학을 낳았다는 평일 것이다.

B. 에드워즈의 인간론과 부흥신학

에드워즈가 두 차례의 부흥을 치루면서 집중적으로 부흥에 관한 글들을 남겼지만, 그의 글들은 결코 상황적 변증에 그치지 않았다. 1737년의 *자세한 기록 (Faithful Narrative)*, 1741년의 *성령의 사역의 특징들 (The Distinguishing Marks)*, 1742년의 *부흥에 관한 고찰 (Some Thoughts)*, 그리고 1746년의 *신앙의 감화 (Religious Affections)* 등에서 에드워즈는 일관성 있게 칼빈주의 틀 안에서 점차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부흥신학을 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그의 부흥신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의 감화*는 칼빈주의 부흥이론에 관한 한 더 이상의 책이 필요 없다고 느끼게 할 만큼, 에드워즈의 *최고-의지의 자유 (The Freedom of the Will)*와 함께-의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²⁶⁾ 이제 *신앙의 감화*를 중심으로 에드워즈의 칼빈주

26) Lloyd-Jones는 부흥과 관련하여 에드워즈의 인간론적 이해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특별히 그가 종교 체험의 분석을 말할 때, 에드워즈의 *신앙의 감화*를 생각나게 한다. "If you want to know anything about the psychology of religion, conversion, revivals, read Jonathan Edwards. When you have read him, you will find that William James'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is like turning from a solid book to a paper-back. The same applies to Starbuck, and of course still more so to the idle vapourings of William Sargant who refers to the famous sermon on 'Sinners in the Hands of an

의 인간론이 그의 부흥신학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에드워즈의 인간 이해

에드워즈의 부흥이해는 그의 인간 이해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 이것이 그의 신앙의 감화 (Religious Affections)에서 잘 보여지고 있는데, 에드워즈의 인간론을 이해하는 문제는 “Religious Affections”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서 이미 차이가 난다. 즉 에드워즈의 Affections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그의 부흥신학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초인 것이다.

에드워즈의 인간론은 전통적으로 인간이 지(intellect), 정(emotion), 의(will)의 세 기관으로 되어졌다는 이론을 거부하며, 보다 더 총체적이며 유기적인 전인격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할 것을 주장한다. 즉 인간 안에 세 개의 기관이 있어서 서로 각기의 기능을 한다는 도식적 이론보다는 인간을 하나의 인격체 안에 단지 이해(understanding)의 기능을 하는 것과 성향(inclination)이라는 것이 있어서 서로 따로 떨어져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 속에 있어서 상호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는 이해인 것이다.

에드워즈가 말하는 “이해”는 흔히 말하는 “이해”이다. “인식과 사색을 하며, 분별, 견지, 판단하는 것”이라고 에드워즈는 정의한다. 반면에 그가 말하는 “성향”이란 무엇을 두고 일컫는 것인지 그의 정의를 들어 볼 필요가 있다.

성향은 그것에 의해 영혼이 단순히 인식하거나, 견지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견지 또는 고려의 대상에 대하여 어떻게 기우느냐를 결정한다; 즉 선호하는 쪽

Angry God'. You will find the complete answer to all that if you read the works of Edwards. These men are mere tyros, merely paddling at the edge of the ocean, whereas Edwards takes you into the depths where you begin to see man face to face with his Maker." *The Puritans*, 361.

으로 기울든지 아니면 혐오 또는 반대쪽으로 기울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이것은 영혼이 사물을 무관심하게 감동 없이 구경꾼처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또는 승인하거나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²⁷⁾

쉽게 성향을 마음의 기울기 또는 마음 바탕이라고 이해해도 좋다. 즉 성향이 하는 일은 선택여부의 의지적 반응이 있기 이전에 마음에서는 좋다 나쁘다의 반응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이다. 마음 바탕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느냐에 따라 어떤 의지의 선택을 할 것인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에드워즈의 “성향”은 좀 더 세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에드워즈는 “의지(will)”란 “성향”의 일부로 본다. 즉 의지라는 것이 지, 정, 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별개의 기관이 아니라, 성향의 일부로서 “단지 행동을 결정하고 지배하는” 활동으로 그 이전에 성향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성향”에 속해있는 또 다른 것으로 “감화”가 있다. “감화(affections)”는 성향 중 “좀 더 강력하면서 감각-또는 감성-적인 활동”을 동반하는 것을 말한다. 언뜻 보기에는 의지와 유사하나 마음의 바탕, 즉 성향의 움직임을 통해 의지의 표현, 즉 행동까지 이어진다는 면에서 독특한 개념이다. 그래서 에드워즈가 말하는 “감화”는 “감화되다” “감동되다” 등의 수동적ニュ양스와 의지를 움직여 행동의 결과까지 연결되는 매우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이 때 이런 활동을 하는 “마음(mind)”을 에드워즈는 “심장(heart)”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성향 중에는 매우 강렬하게, 격렬하게, 나타나는 것도 있다. 이것을 “열정(passion)”이라고 한다. 이때의 열정은 감화보다 훨씬 더 강렬하여 “동물적 기질”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자제와 조절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²⁸⁾

에드워즈의 인간론이 그의 부흥신학의 관점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27) Edwards, *Religious Affections*, 2:96.

28) *ibid.*, 2:96-98.

은 “성향”이 “이해”와 갖는 밀접한 관계성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이해는 이해의 일만 하고, 의지는 의지의 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흔히 머리와 연관되는 “이해”의 활동이 사실상 “모든 이성적 감화에 관여”할 뿐 아니라,²⁹⁾ “감화/성향”도 선택과 거부를 놓고 사고하는 일에 영향을 끼친다고 에드워즈는 말한다.³⁰⁾ 즉 “성향”이 어떤 사물, 또는 상황을 놓고, 크고 작던 간에, 끌리거나 멀어지곤 하는데, 이러한 “성향”의 활동이 “이해”의 활동에까지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영혼과 몸의 연합의 법칙”을 보더라도 “의지나 성향의 살아있고 강력한 운동”은 몸에 영향을 끼치며, 또한 몸도 “감화의 활동을 촉진”시키기도 한다. 이런 일이 부흥의 상황 속에서 흔히 나타났다. 에드워즈는 부흥의 상황을 설명하는 문맥에서 사람의 머리에서 일어나는 작용-예를 들어 상상(imagination)-이 의지나 감화에 의해 많은 영향을 입으면서,³¹⁾ 동시에 머리가 마음에 생각을 전달, 생성하는 작용에 관여한다고 말한다.³²⁾ 간단히 정리하면, 에드워즈의 인간 이해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이해”와 “성향”이 각기 다른 기관으로 다른 영역의 일을 하는 무관한 관계가 아니라 상호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유기적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이 에드워즈가 칼빈주의 인간론에 기여하는 중요한 특징이다. 즉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중생하게 될 때, 그 결과가 인간의 한 부분 또는 기관에만 끼쳐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심, 참된 신앙은 인격 전체 어느 한 구석도 빠지지 않고 총체적으로 끼치게 된다는 그의 이론이다. 그래서 그가 참된 신앙을 “신앙의 감화”로 정의하는 것이 “감화”란 인간의 인격

29) *ibid.*, 2:107.

30) *ibid.*, 2:285.

31) Edwards, *The Distinguishing Marks*, 4:236-37.

32) Edwards, *Religious Affections*, 2:290.

전체-이성 포함-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 신적/영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ability), 감각(sense)일 뿐 아니라, 반드시 행동(열매)으로도 보여져야 한다는, 소위 청교도의 성도의 가시성(visibility of saint)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론 인간 이해에 대한 이론을 배경으로 볼 때, 중생하지 못한 자연인(The Natural Man)은 전혀 신적인 것을 이해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려는 의지가 발동될 수 없는 것이다.

2. 자연인

회심하지 않은 자연인에 대한 에드워즈의 이해는 전형적인 칼빈주의임이 그의 논문과 설교 등을 통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의지의 자유(Freedom of the Will)*, *원죄론(Doctrine of Original Sin)*, *신앙의 감화* 등의 논문은 회심하지 못한 자연인의 상태에 대해 폭넓게 다루고 있다. 그 외에도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원수(Men Naturally Are God’s Enemies),” “신앙에 관한 인간의 본성적 무지(Man’s Natural Blindness in the Things of Religion),” “무서운 상황 속의 자연인(Natural Men in a Dreadful Condition),” 등의 설교는 그리스도가 없는 죄인의 소망 없는 현실을 철저하게 폭로하고 있다.

에드워즈의 *원죄론*의 핵심은 신적 은혜의 주권적 개입이 없이는 죄인의 기본적인 성향은 불가피하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특히, 에드워즈가 칼빈주의 원죄론에 기여하는 부분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앞서 언급했던 마음의 구조의 관점에서, 소위 감화(affectio)의 부패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마음의 바탕, 즉 성향(disposition)이 의가 아니라 정반대의 죄 쪽으로 기울어(incline) 현상을 말하는데, 즉 사람의 중심이라고 일컬어지는 마음(heart)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으로 기울었다는 말이다.³³⁾ 이 때,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의미는 타락한 상태의 인간은 아무런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선택하지 않는데, 그것은 마음의 성향(disposition)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 하기 보다는 못한다는 것이다. 즉 그의 의지는 그의 본성, 즉 성향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는 결코 자유하지 않다는 칼빈주의 특징을 유지하고 있다.³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이해/인지(understanding)의 영역에 까지 영향을 끼친다. “신앙의 관한 인간의 본성적 무지 (Man’s Natural Blindness in the Things of Religion)” 설교에서 에드워즈는, “사람의 마음에는 무지하게 하고 무능력하게 만드는 성질의 원리가 있어서 신앙에 관한 것들에 대해 그의 기관(이해)을 ... [바로]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을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³⁵⁾ 또한 그의 “신적이며 초자연적 빛 (A Divine and Supernatural Light)” 설교에서도 그는 “사람의 마음은 본성적으로 신적 진리에 관해 편견 투성이다. 복음에 대해 적대감으로 가득하여, 자신의 주장을 피는데 저해가 되며 또한 마음 자체를 상실케 한다”고 말하고 있다.³⁶⁾ 또한 *신앙의 감화*에서 에드워즈는 “자연인은 영적인 일들에 대해 아무런 체험이 없다. 사도바울은 그가 영적인 것들로부터 멀리 있으며, 아무것도 모르며, 완전한 이방인이며, 그런 건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 자체를 모두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으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33) Edwards, *Original Sin*, 3:140-146.

34) Edwards, *Freedom of the Will*, 1:277-80.

35) Edwards, “Man’s Natural Blindness,” Banner, 2:247-56.

36) Edwards, “A Divine and Supernatural Light,” Banner, 2:15.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는 의미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³⁷⁾

즉 에드워즈의 인간론은 총체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이해하고 있는데, 이 점은 회심하기 전의 자연인을 이해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작용하고 있다. 자연인이 하나님과 영적인 일에 대해 이해도 못할 뿐 아니라, 전적으로 거부하는 현상은 성향(disposition)과 이해(understanding) 모두가 다 타락하였기 때문이다. 즉 칼빈주의 신학의 특징인 인간의 전적타락의 의미를 에드워즈는 이해와 성향의 관점에서 모두 타락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고로 타락한 인간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 중생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3. 중생의 변화

에드워즈의 중생론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여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였음을 전제하는 데서 출발하는 전형적인 칼빈주의 중생론이다. 그는 1734-35년 부흥을 기록하는 자리에서 “회심이란 죽었던 영혼에 즉각적으로 마음을 변화시키며 생명을 불어 넣는 위대하고도 영광스런 하나님의 능력의 일이다”고 정의하였다.³⁸⁾ 에드워즈가 간혹 중생과 회심을 구분 없이 쓰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서도 “중생”이라고 해야 할 것을 “회심”이라고 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 에드워즈가 중생과 회심을 혼돈하고 있다고 말하기 보다는, 부흥의 정황 속에서 중생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회심을 촉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시 말해, 칼빈주의 설교자가 전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중생을 청중들에게 촉구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의 의미와 중요성을 회심을 촉구하는 문맥에서 말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좀 전의 인용으

37) Edwards, *Religious Affections*, 2:204.

38) Edwards, *A Faithful Narrative*, 4:177.

로 돌아가, 여기에서 에드워즈가 강조하는 것은 참된 회심이란 하나님의 영적이며 초자연적인 중생의 결과라는 점이다.

또한 *신앙의 감화*의 주제 “참 신앙은 거룩한 감화로 되어진다”에서도 보듯이 에드워즈가 강조 하는 것은, 회심의 경우만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일들은 자연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 사역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바로 앞에서 정의한 자연인을 변화시키는 초자연적인 일이 중생인 것이다. “자연인은 영적인 일들에 대해 전혀 체험이 없다.” “자연인은 성도들이 누리는 진정한 은혜와 같은 성질의 것이 그들 안에 전혀 없다.” “자연인은 성경에서 영적 빛도, 영적 생명도, 영적 존재도 갖지 못한 것으로 묘사된다.” 전혀 영적인 것과 무관했던 존재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 살아나서 영적인 아름다움을 보며, 영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을 에드워즈는 중생이라고 보는 것이며 설교의 정황에서 에드워즈는 칼빈주의 설교자답게 중생이 아니라 회심을 촉구 하고 있는 것이다. “회심은 흔히 장님이 눈을 뜨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전혀 새롭게 만들어지는 창조, 새로 태어난 아기로 비교 된다.”³⁹⁾

“새롭게 만들어지는 창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자연에 속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어 진다는 점이다. 에드워즈는 같은 문맥에서 “초자연”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이것들에서 분명한 것은 신자들이 체험하는 그런 은혜로운 영향들, 성도들이 체험하는 성령의 효과들은 전적으로 자연을 뛰어 넘어서는 것이며, 인간이 자신 안의 본성에 의해 찾을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다른 종류의 것이며, 자연의 자질이나 원리를 향상시키고, 아무리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고 칭송하고, 그런 것들을 아무리 가져도, 사람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자연인이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자연에 속한 것과 단지 정도와 환경에서만 다른

39) Edwards, *Religious Affections*, 2:204.

것이 아니라 종류에 있어서도 다른데 즉 훨씬 더 뛰어난 성질의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은혜로운 감화는 초자연적인 영향들로부터 온다고 말 할 때 쓰는 초자연이 의미하는 것이다.⁴⁰⁾

앞에서 이미 말했지만, 결국 에드워즈가 말하는 회심의 사건을 통해 생기는 “초자연 적인 일”은 성령의 중생의 일을 일컫는 말이다. “중생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흔히 성경에서 새로운 감각을 주는 일, 볼 수 있는 눈을 주는 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는 일,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는 일, 태어날 때부터 멀었던 눈을 뜨게 하는 일,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는 일에 비교된다.” 여기에서 에드워즈가 “새로운 감각 (new sense)”라는 말을 쓰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중생에서 성령이 초자연적으로 가능케 하시는 일인데, “중생에 수반하는 이 새로운 영적 감각(new spiritual sense) 그리고 새로운 성향(new disposition)은 새로운 기관이 아니라 본성에 새로운 원리(new principle)이다.”⁴¹⁾ 즉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중생의 사역을 통해 전에 없던 새로운 기관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기관에 전에 없던 새로운 능력, 감각이 생긴 것을 “새로운 원리”가 작용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즉 “새로운 원리”는 인간의 이해(understanding)와 성향(disposition)에 대해 “새로운 기초”가 되어 전에 없던 새로운 영적 감각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⁴²⁾

에드워즈의 중생론이 뛰어나다고 칭찬할 만한 것은 바로 이때 인간에게 생기는 초자연적 변화가 단지 인간의 마음 한 구석-지, 정, 의, 중 하나

40) *ibid.*, 2:205.

41) *ibid.*, 2:206.

42) *ibid.*, 2:206. “So this new spiritual sense is not a new faculty of understanding, but it is a new foundation laid in the nature of the soul, for a new kind of exercises of the same faculty of understanding. So that new holy disposition of heart that attends this new sense, is not a new faculty of will, but a foundation laid in the nature of the soul, for a new kind of exercises of the same faculty of will.” *ibid.*

-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해(understanding)와 감화(affections)를 떼어놓고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마음의 감각을 말하면서, 에드워즈는 “이 일에 있어서 이해와 의지의 두 기관을 명백하게 구분하기 힘들다”고 했다.⁴³⁾

중생의 결과가 이해와 감화 모두에게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회심이 교리적 이해만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님은 자명한 것이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참된 신앙은 감화를 낳는 것이며 그것이 없이는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고로 회심이 참되기 위해서는, 즉 참된 회심의 특징은 이해와 감화가 모두 변화되는 것이다. 에드워즈는 이해(머리)와 감화(심장)의 관계를 이렇게 묘사한다.

한 편으로, 뜨겁게 감화된 심장처럼 이해에도 빛이 있어야 한다. 열만 있고 빛이 없다면, 그 심장에는 신적이거나 하늘의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열은 없고 빛만 있다면, 차갑고 감화 없는 심장에 개념과 사색으로 가득한 머리, 그런 빛에는 아무런 신적인 것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런 지식은 신적인 것에 대한 참된 영적 지식이 되지 못한다. 신앙의 위대한 것들이 옳게 이해된다면, 그것들은 심장도 감화할 것이다.⁴⁴⁾

4. 참 신자와 부흥

이런 차원에서, 에드워즈가 볼 때, 진정한 성도 즉 참된 회심을 한 사람이라면 자연인과는 명백하게 달라야 하는 것이다.⁴⁵⁾ 왜냐하면 참된 성도

43) *ibid.*, 2:272.

44) *ibid.*, 2:120.

45) 에드워즈는 평생에 걸쳐 “무엇이 참된 신앙인을 만드는가?” 라는 질문을 했다. 외조부의 개방적인 성향을 보면서, 부흥시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다고 하였다가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에드워즈는 “참 신자”를 구분하는 문제뿐 갖고 고민했고, 그래서 한 사람이 참 신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썼다. 결국 “참 신앙”이란 “거룩한 감화(holy affections)”로 정의되었고, “참 신자”는 이 거룩한 감화가 있는 사람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는 초자연적인 변화를 거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자연인과 똑같은 이해(머리)와 의지(심장)이지만, 새로운 영적 원리가 그 영혼가운데 있을 때, 영적인 기쁨(relish)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때 새로운 원리는 성령의 내재하심을 통해 가능하게 되는데 에드워즈는 바로 이 점이 자연인들이 갖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성령이 참 신자에게 주어져 성령의 지속적으로 거하시는 죄소로 그들 안에 내재하시며, 새 속성의 원리로 또는 생명과 활동의 신적 초자연적 근원으로 그들 마음에 영향을 끼치신다.”⁴⁶⁾

에드워즈가 말하는 참 신자가, 그러나, 완벽한 신자임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에드워즈가 부흥의 특징을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에 있어서 신중하지 못하고 규칙성이 없음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일”로 인해 이런 일들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⁴⁷⁾ 같은 문맥에서 “성령의 구원의 영향을 누리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열정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람의 본성이 심하게 약해지는 일과 잔존하는 어둠과 부패”가 있음을 인정한다.⁴⁸⁾ 에드워즈의 요점은 신자들도 때때로 그들의 감화가 약해질 수 있으며, 그러므로 다시 부흥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부흥을 통해서 자연인만 성령의 초자연적 중생에 의해 회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신자들로 얼마든지 영적으로 식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부흥은 필요한 것이다.

사람들에게 성령의 부으심의 계절이 아닐 때는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흔히 무디고 죽은 시간이다. 사람들은, 성령이 있어서 더욱 생명력이 있었던 때처럼, 죄를 거역하는 그런 열망도 없으며, 극성을 부리는 악을 반대하지도 않고, 사람들 가운데 있는 이런 악들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무디고 나태하

46) Edwards, *Religious Affections*, 2:200.

47) Edwards, *The Distinguishing Marks*, 4:241.

48) Ibid.

며, 죄와 사탄이 기성을 부리지만, 마땅히 죄를 꾸짖거나, 저항하는 간증을 보이거나, 악을 제거하기 위한 방편을 쓰는, 그런 철저한 반대를 할 마음조차 없다. 그러나 성령을 사람들에게 부어주실 때는, 그들의 마음을 휘저어서 더 철저하게 하고 죄와 더불어 싸우는 일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게 한다.⁴⁹⁾

한 때 신앙의 감화를 체험했던 사람들에게도 신앙이 시들어지는 일은 왕왕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부으심은 신자들의 감화를 새롭게 하는 효과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에드워즈의 칼빈주의 인간론은 구조적으로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필요로 함을 강조하고 있다. 참 신앙은 머리와 가슴이, 즉 이해와 감화가 모두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성령이 새로운 원리로 내재할 때 가능해 지는 것으로 성령의 부으심, 즉 부흥 사건을 통해 이런 일들이 촉진되는 것이다. 결국 부흥의 일은 이중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 기존의 신자는 신앙의 갱생(renewal)의 효과를, 불신자는 회심의 효과가 그것이다. 에드워즈는 깊이 있는 인간 이해를 통해 칼빈주의 인간론을 더욱 발전시키며 부흥이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구조적 특성과 조화를 이루는지 보여주었다고 하겠다.

IV. 에드워즈의 부흥이해가 주는 의

에드워즈의 부흥이해는 단순히 그의 지엽적인 사상이 아니라, 그의 전체 신학을 반영하는 하나의 신학체계를 이루고 있음을 보았다. 이제 에드워즈의 부흥이해가 주는 몇 가지 의를 찾아보려고 한다.

49) Edwards, Sermon Manuscript on Acts 19:19, Beineke Rare Book and Manuscript Library.

첫째, 그의 부흥이해는 부흥의 현상을 본질적인 것과 주변적/상황적인 것으로 구분하는 것을 가능케 하였다. 한 부흥사건을 놓고 진정한 부흥인지 아닌지의 판단이 그 안에서 발생한 모든 현상이 다 올바른 현상이어야만 그 부흥을 진정한 부흥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에드워즈의 부흥이해는 참 부흥 속에서도 주변적인 현상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 대각성운동 자체는 분명한 부흥의 사건이었지만, 그 안에 같이 발생하는 어떤 극단적인 현상들도 있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없는 현상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주변적인 것으로 분류해 내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성령의 역사를 구분 짓는 특징들 (The Distinguishing Marks)* 이 그 예다. 거기에서 에드워즈는 “판단할 근거가 되는 표징이 아닌 것,” 즉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표징(signs)들이 아닌 것들”에 대해 열거한 적이 있다.⁵⁰⁾ 에드워즈는 그러한 증거들로 인해서 그 현상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인지를 단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하는 것들을 주변적 성질의 것들로 분류하였다. 즉 에드워즈는 부흥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면서도, 동시에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1743년에 출간된 *부흥에 대한 고찰*과 1746년에 출간된 *신앙의 감화*에서도 에드워즈는 역시 부흥의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런 특징들의 유무가 부흥의 진위성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음을 덧붙이고 있다. 그 효과로써, 에드워즈는 한 편 지나치게 광신적인 사람들에게는 분별력과 자제를 촉구하며, 다른 한 편으로는

50) Edwards, *The Distinguishing Marks*, 4:228. 예를 들어 “매우 비범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 현상,” “눈물, 진동, 신음, 괴성, 진통, 또는 기력상실과 같은 몸에 나타나는 어떤 특징들,” “신앙문제에 대한 법석을 떨며 요란을 피는 일,” “많은 사람들이 상상력에 강력한 인상을 받는 일,” “예(example)가 커다란 도구로 사용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에 있어서 신중하지 못하고 규칙성이 없음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일,” “많은 잘못된 판단들과 체험 속에 섞여있는 사탄의 미혹들,”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심각한 잘못과 수치스런 일로 전락하는 경우,” “목사가 하나님의 법에 대한 공포를 매우 감성적이고 진지하게 주장함으로써 부흥을 진작하는 경우” 등을 에드워즈가 열거하고 있다. Ibid., 4:228-246.

부흥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왜 부흥이 하나님의 영광된 일인지, 그러므로 왜 부흥을 장려할 필요가 있는지 입증하는 작업을 한 것이다.

둘째, 에드워즈의 부흥이해는 무엇이 참된 부흥의 본질적 특성인지를 조 명하게 하였다. 에드워즈는 예리한 관찰과 탁월한 분석능력을 통해 조심스 럽게 본질적인 부흥과 임시적인 현상을 구분하는 작업을 여러 차례 구분한 바 있다. 여기에서 그의 주된 관심은 참된 부흥의 본질적인 특성이 무엇이나 는 것이었다. 만약 부흥이, 그가 정의한대로, 성령의 부으심이라면, 참된 부 흥은 성령의 역사라고 성경적으로 인정할만한 특징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구분 짓는 특징들에서 그가 말하는 소위 “긍정적 증거 (positive evidences)”* 증거인 것이다. 즉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을 잘못 오해하는 위험 없이 판단하기 위해 근거 로 삼아야 할 확실하게 구분되는 성경적 증거이며 성령 사역의 특징이 무엇” 인가에 대한 관심이다.⁵¹⁾ 이 논문에서 그는 그 특징들을 이렇게 열거한다.

1. “사람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이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고 난을 당하셨던 예수에 대한 존경이 고취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간 의 구세주이심에 대해 복음이 선포하는 것을 마음에 더욱 확고히 하는 것으로 보인다”⁵²⁾
2. “작용하는 영이 죄를 부추기고 고착케 하며 세상에 대한 열망을 더 좋아하게 하는 사탄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반발하도록 한다면”⁵³⁾
3. “사람들이 성경을 더 사모하게 하고 그 말씀의 진리와 교리를 더욱 확고히 하 게 한다면”⁵⁴⁾
4. “사람들 가운데 진리의 영으로서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며, 참된 것들에 대해

51) Ibid., 4:248.

52) Ibid., 4:249.

53) Ibid., 4:250.

54) Ibid., 4:253.

확신을 준다면”⁵⁵⁾

5.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사랑의 영으로 작용한다면”⁵⁶⁾

이 긍정적 증거들은 상황적 설명만으로는 대신할 수 없는 명확한 제시라고 하겠다.

셋째, 이미 느낄 수 있듯이, 에드워즈의 부흥이해는 부흥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목적과 방법론에 대한 분명한 한계를 설정해 주는 의를 지닌다. 부흥을 통해서 어떤 특수한 현상, 즉 인위적으로 조성된 현상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령의 부으심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될 때, 방법론은 이미 그 목적에 초점을 둔 불가분의 것이 될 것이다. 목적과 방법론의 밀접한 연관 관계는, 에드워즈의 부흥신학을 이해할 때, 그 의미가 더욱 중요함을 느끼게 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의 칼빈주의 신학이 그가 어떤 부흥신학을 형성하게 되었는지에 크게 작용하였음을 확인하게 된다.

V. 나가는 말

에드워즈의 부흥신학을 이해하는 작업에 있어서, 우리는 신론적 접근 방법과 인간론적 접근 방법을 시도하였다. 신론과 부흥의 관계에서,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에 관한 이해 속에서 부흥을 권장해야 할 동기와 방법론을 찾았다. 부흥은 큰 규모의 구속의 일로써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극대화하는 기능을 한다. 이 때 부흥은 구원의 완성을 향한 구속역사의 선상에 있는 사건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락

55) Ibid., 4:254.

56) Ibid., 4:255.

되는 일이다. 즉 하나님이 부흥의 주권적 근원이다. 고로 부흥을 권장하는 어떤 방법도 성령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부합해야 한다는 신학적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에드워즈의 인간론에서 우리는 부흥을 도모하는 방법론이 추구해야 할 특성을 배울 수 있었다. 감화(affections)와 이해(understanding)의 영역에 대한 그의 입장은 그 둘을 분리시키지 않는 방법을 추구케 한다. 이때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은 감화와 이해를 분리시키지 않는 방법은 사실 사람이 고안한 방법이 아니라 신적 초자연적 성질의 일이라는 것이다. 즉 부흥이 심리적 조작에 의해 초래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만이 진정한 부흥을 가져온다는 명백한 칼빈주의 결론이다. 그러므로 자연인에게 필요한 부흥은 그의 감화와 이해의 철저한 재편성을 낳을 수 있는 초자연적인 중생 사역에 의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회심한 신자에게 있어서도, 신앙의 감화가 시들해지는 순간은 있기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이때 필요한 부흥도 신자의 감화와 이해를 건드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어야 하며 오직 성령의 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에드워즈의 일관성 있는 칼빈주의 부흥신학을 통해서 터득하는 결론은 그의 부흥은 그의 신학적 귀결이라는 점이다. 여러 편에 달하는 그의 부흥의 글들은 어떤 특수상황을 변론하기 위해 임의로 전개된 것이 아니라 그의 칼빈주의 신학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칼빈주의 신학에 입각한 부흥신학 추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비록 에드워즈 이상의 부흥신학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평을 하지만, 개혁주의 부흥신학은 에드워즈의 이해로 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알미니안 신학이 부흥의 주된 이론적 근간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에드워즈의 부흥신학을 통해 앞으로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